



박재완 기자의
사찰 풍경

멀고도 가까운 봉정암

지극한 마음으로 오른다
누굴 만나기 위함인가?



十方世界

현대불교 buddhanews.com

서기 2008년 7월 2일 수요일 (주간) 제 686 호

9



해발 1200m. 봉정암은 먼 길이다.
백담사에서 출발한 길은 영시암을 거쳐 오세암을 지났다.
다섯 시간을 걷고 오세암에서 1박을 했다. 다림쥐가 눈을 맞추며 따라온다.
이제 남은 이정표는 봉정암 뿐이다. 잠시 바위에 앉아 모자란 숨을 채운다. 설악산이 짙어간다.
기다리고 있을 길들을 만나기 위해 다시 길을 걷는다.
몸과 마음 모두 지쳐가고 마침내 하늘과 땅은 길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
마지막 남은 숨을 몰아쉬며 길 끝에 오른다.
지팡이를 짚고 선 백발의 할머니가 두 눈을 감고 합장을 한다. 봉정암이다.

봉정암 전각들은 설악산 나무와 어깨를 기대고 흰 구름 내려앉은 곳에는 부처님사리탑이 서 있다.
사리탑 안에는 신라 자장(慈藏, 590~658) 스님이 당나라에서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가 봉안되어 있다.

길었던 하루가 저물고 봉정암에 밤이 온다.
사리탑 위로 석양이 내리고 정성스레 합장한 불자는 고요한 어둠 속에서 부처님을 만난다.
기다렸던 만남. 한 걸음씩 내딛었던 시간들은 합장한 손끝에 물들고 간절했던 마음은 멀고 먼 그 옛날로 달려가 안긴다.

언제 나왔을까. 은빛 반달이 도량을 물들이고 있다.
마음으로 오르지 않는 봉정암은 멀었고 마음으로 다닌 첫 걸음 속엔 이미 봉정암이 있었다.
부처님을 찾아 떠났던 발걸음은 이제 부처님 품에서 잠이 들고 사리탑 긴 그림자는 시방(十方)으로 내려간다.
별들이 물러온다. 이제 누굴 만날 차례인가?

글 · 사진=박재완 기자jwpark@buddhapia.com



SHC 삼환종합양초

삼보귀의 하얏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을 개발하여 (실내용 양초 = 밀납양초, 약썩향양초, 식물성 양초) 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무료전화 080-0766-88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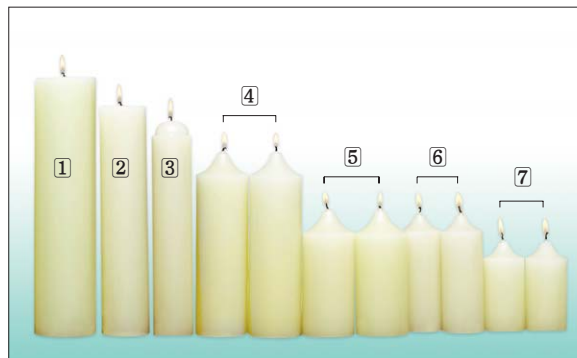
※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밀납양초(蜜蠟洋燭)

- ① 밀납초(1-4호까지 8개入 반침대 2개入)선물세트
- ② 밀납초금강경(7개入)선물세트
- ③ 밀납초원기둥 7.4φ × 30Cm
- ④ 밀납초돈타레 5.6φ × 27Cm
- ⑤ 밀납초 1호 반아심경 5.9φ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 ⑥ 밀납초 1호 금강경 5.9φ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 ⑦ 밀납초 3호 반아심경 4.7φ × 14Cm 연소시간 約 30시간 이상
- ⑧ 밀납초 4호 반아심경 4.7φ × 10Cm 연소시간 約 24시간 이상



■ 약썩향 양초

- ① 원기둥 7.4φCm × 29Cm
- ② 돈타레 5.6φCm × 27Cm
- ③ 밀 대 4.7φCm × 25Cm
- ④ 1호 5.9φCm × 20Cm
- ⑤ 2호 5.9φCm × 14Cm
- ⑥ 3호 4.7φCm × 13Cm
- ⑦ 4호 4.7φCm × 10Cm

장엄용 양초



■ 육각초 45cm ■ 야광 호랑이(산신) 70φ X 35cm



■ 야광 용초 70φ X 35cm ■ 원기둥 마패 7.4φ X 30cm
등산불 마패 4.7φ X 19.5cm

주소창에 "양초.net" 라고 치세요~ 주소창 양초.net